북한 '사회주의 건축'에 대하여

KICEM

이종석 ㈜애드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Ⅰ. 서문

흔히 우리가 접하는 언론매체에서 나타나는 북한건축에 대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남한의 것과 별 다름없는 조금 낙후된 '건축물' 정도로 보고 지나치기 쉽다. 특히 최근 북한의 초고층 건축과 화려한 건축물의 등장은 북한에 대한 착시현상을 일으킨 나머지 북한의 왜곡된 정체성을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일까지 생기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건축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의 수준과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 대한 정체성을 우선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와 현실을 반영한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실에 입각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Ⅱ. 북한의 사회주의와 변화

북한은 아직도 사회주의국가로 분류되고는 있지만 마르크스 및 레닌주의에 입각한 전통적 공산주의 이론과는 달리 북한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체제를 수정해 왔다. 이러한 북한의 독특한 체제는 북한 사회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념적인 접근법을 통해 사회를 통제해 왔으며, 3대 세습통치가 가능토록 하였다. 여기에 북한의 사회주의 건축이 이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상당히 담당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통일을 준비하는 현 시기는 학문적 접근과 연구가 절실한 때이다.

1. 북한 사회주의의 도입

북한정권이 사회주의 국가건설단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국가는 구소련이나 중국도 포함되지만 결정적으로 일본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36년간의 일제강점기에 한민족에게 수많은 억압과 탄압을 통해 민족정신을 말살하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활동이 어렵게 된 많은 독립투사들은 만주, 연해주, 사할린 등 해외지역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게 되었고, 해방이후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소련군부의 지지를 받아 등장한 김일성도 그중 한 인물이었다. 그 시대에 김일성이 자신을 영웅화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일투사'라는 점이었고, 일본 제국주의에 치를 떨던 당시의 국민적 감정과 시대상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사회주의'가 민족해방을 이룰 수 있는 탈출구로 여겨지기도 했던 시기였다. 특히 북한지역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정권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소련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었던 이유도 있지만 일본제국주의와 차별화된 사회주의가 오히려 신선하게 느꼈던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2. 주체사상의 정착

1950년대 중반까지 6.25전쟁으로 폐허된 북한 전역은 소위 '위대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가운데 중국 및 소련과 우호적이고 균형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 기초건설을 이루기도 전에 김일성은 큰 복병을 만나고 말았다. 1953년 스탈린 사망이후 소련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 시도로 인해 중국과의 갈등, '중 · 소 분쟁'이 시작되었다. 동유럽을 비롯한 당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가 친소적 관계였으나 이를 계기로 사회주의 국가간 새판 짜기에 의한 지각변동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은 이 시기에 역사적, 지정학적 운명에 따라 중립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그동안 꾸준하게 제공받았던 전후복구 원조가 현저히 감소하게 됨에 따라 매우 힘든 시기를 겪어야 했다.

북한은 이 시기부터 '주체사상'을 통해 새로운 방향의 사회주

의국가 발전을 모색하게 되었다. 쉽게 말해 북한은 스스로의 운명을 깨닫고, 일찍부터 생존차원의 독자노선을 걷게 된 것이다. 주체사상은 사상과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부분에서 자주적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는 폐쇄성을 갖는 결과가 되기도 했다.

3. 북한의 경제체제와 '시장화'

사회주의 국가경제는 계획경제에 의해 국가통제력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1990년도 중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은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며 역경을 이겨나가는 가운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배급'이 사라지고 '자력갱생'이란 구호아래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각 지역의 '장마당'은 북한의 경제체제를 바꿀 기세로 급성장 하고 있다. 즉, 북한은 현재 '시장화'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이다.

'시장화'는 과거 사회주의국가에서 금기시 하던 개인 간 각종 상거래 행위로서 식량, 생필품, 건축자재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고 광범위하게 번져나가고 있다. 북한과 같이 경제개방을 이루지 않은 폐쇄국가에서 민간주도의 상거래 행위가 북한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처음에는 직장에서 퇴근한 후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팔아 부족한 식량과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이런 길거리 상행위를 통해 더 나은 물건과 식량을 조달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고, 시장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시장은 북한주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생활수단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존립차원에서는 여러가지 모순과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먼저 북한 당국은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세금을 거두기가 힘들 것이다. 만일 세금을 부과한다면 주민의 반발보다도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또 하나는 배급에 의존하던 시기보다도 훨씬 심각한 빈부격차를 초래하게 된다. 즉, 상업적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점점 빈곤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주의국가 붕괴를 초래 할 수 있는 심각성이 내포되어 있다.

Ⅲ. 북한 사회주의와 건축

1. 현대건축의 도입

북한의 현대건축은 일제 강점기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민통치로 인한 민족정신 말살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항일투쟁이 고조되었던 1920년대 북한지역에서는 사회주의노선의 정착과 함께 민족주의의 부활을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새로운 사회주의 지도자는 식민 통치하의 제국주의적 건축에서 탈피하여 보다 새롭고 차별화된 현대건축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을 꿈꾸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역사박물관(1945)

2.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건축이론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한창 강화되던 시기 건축분야에서는 '주체건축'이란 이름으로 북한 전역의 건설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주체건축'은 인민에게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이전에 사회주의 체제의 존속을 위한 최상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었다. 이는 건축이 인민의 사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형태적 언어의 표현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주체사상의 핵심요소를 건축적 표현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인민에게 사회주의 교양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오늘날 평양의 모습은 김정일이 권력쟁취 과정에서 주체건축을 이용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옥류관(1961)

김정일은 1992년 '건축예술론'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북한건축의 모든 것이 국가통제 하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김정일은 "주체건축의 내용은 사회주의적인 것이며 형식은 민족적인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민족적"이라는 것은 주체사상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건물의 외관이 민족 전통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이미지와 차별성을 갖도록 하는 등 주체사상이 인민들의 정신과 소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인민 대학습당, 평양 대극장, 옥류관과 같이 전통건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건축물이 대표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남한에서 지향하는 전통건축과 구분되어야 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전통미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것이고, 남한의 전통미는 한국 전통건축 그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평양 개선문(1982)

주체건축은 또한 대외적으로 사회주의의 위대함과 성공을 홍보하는 수단으로서 같은 값이면 보다 높고, 크고, 웅장한 모습으로 보여야 하므로 기념비적 건축을 지향해 왔다. 대표적으로 류경호텔, 당 창건 기념탑, 주체사상탑, 평양개선문을 비롯한 고급 고층아파트의 건설을 들 수 있다.

주체사상탑(1982)

3. 체제유지와 건축

당 창건기념탑(1995)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동구 공산권국가의 몰락과 함께 구소련의 붕괴에 이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북한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게다가 1994년 김일성의 사망이후 대흉수를 겪은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하였으며 이어지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은 북한정권의 체제유지 위협까지 느끼게 하였다. 김정일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경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자 북한식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1998년부터 4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였다.

류경호텔(2016 건설중)

이러한 시기에 안정적인 대외투자 유치와 대내 정치적 안정과 체제유지를 위해서 대두되는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표출을 위한 노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건물이 평양의 '류경호텔'이다. 이 호텔은 당초 1988년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축하하기위해 계획되었으나 공사중 막대한 건설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오다 외국자본의 유치에 힘입어 2008년부터 공사가 재개되어 일부 개장하고 마무리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축규모는 지하4층 지상101층, 높이 317m, 연면적 360,000m² 규모이다. 이 외에도 1995년 완성된 당창건기념탑은 조선노동당 창건50주년을 기념하기위해 70m 높이로 지어졌다.

Ⅳ. 맺음말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의 한계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1990년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이후 더욱 폐쇄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제적 문제는 비정상적 외화벌이를 통해 충당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부분은 핵개발과 군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전문가의 분석이다.

북한의 경제적 여건은 김정일 집권이후 거의 성장하지 못하였으며 최근 김정은 체제에서도 경제적 발전을 위한 노력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북한건축은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해방 전후 북한 현대건축 건설초기에는 기능성과 합리성에 충실했던 것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상업적이고 외부장식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눈에 띄는 것은 특수층에게 부여되는 각종 특혜로서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의 호화 고층아파트는 특수층에 대한 충성심의 매수와 이를 통한 체제유지를 위한 목적 이외에 북한 사회주의의 우수성과 성공을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주의 건축을 여전히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건축계의 움직임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자 침체된 국내 건설시장에 새로운 희망이기도 하지만, 통일 이후 북한의 도시와 건축물의 활용성에 대해 논의할 경우 공간적, 물리적 등의 분석 이전에 북한 사회주의건축에 대한 속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간과되었던 북한건축을 인간위주 건축의 순수성과 본질로 되돌릴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남북한 건축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참고문헌

1) 필립 뭬제아. "이제는 평양건축". 도서출판 담디

2) 김원, "사회주의 도시계획", 서울: 보성각. 1998

3)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2001

4) 김영성, "북한의 건축양식, 국토와 건설", 7월호(서울: 대한건설진흥회, 1998)

5) 김현수,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발사학 위논문. 1993

6) 리화선, "발언편집부 편, 조선건축사-2", 서울: 도서출판 발언. 1993

7) 이왕기, "북한의 건축", 북한의 문화예술, KBS 남북교류협력단. 2008

8) 이왕기, "평양과 서울의 건축과 역사조형물", 김승렬 외, "분단의 두얼굴", 역사비평사. 2005

9) 이왕기. "북한 건축 또하나의 우리모습". ㈜서울포럼. 2000

■ 이종석 E-mail : addman@naver.com